

# 진모영 감독 “남아’ 글로벌 시리즈…사랑 지침서 됐으면”

2014년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감독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총괄 프로듀서 맡아

‘남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 공개

2014년 화제의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이 넷플릭스와 손잡고 ‘남아’를 글로벌 시리즈로 확장했다.

전 세계 6개 나라의 노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남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가 공개됐다.미국, 스페인, 일본, 한국, 브라질, 인도에 사는 노부부의 일상을 전한다.

15일 화상으로 만난 진 감독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처음부터 생각했던 키워드는 ‘사랑의 교과서’라며 “이 이야기가 궁극적인 사랑에 닿는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총괄 제작자이자 한국 에피소드의 연출가로 참여한 진 감독은 현지 제작자들이 힘을 합쳐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노부부들의 깊은 사랑을 1년 동안 오롯이 담아냈다.

그는 “총괄 프로듀서인데, 전체 원작의 이야기 구조 또 어떤 분위기를 그런 부분들을 통일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렉터를 선발하고 캐릭터들을 같이 찾고 해서 지역에서는 지역의 디렉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6개 작품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낸 작업입니다.”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작품은 넷플릭스가 원작의 IP(지적 재산권)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노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진 감독에게 건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나라의 감독이 국가별의 에피소드 촬영을 진행했으며 2018부터

2019년까지 80~100회차의 촬영을 거쳐 세계 곳곳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냈다.

진 감독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담당이 보고 제안했다”며 “2017년 9월 시작해 2018년 설계하고 각 나라의 감독과 출연자를 선발해 테스트 촬영을 거쳤다. 2019년 빠듯하게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같이 찍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화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넷플릭스를 통해 또 다른 생명력을 갖고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어 기쁘고 설렌다”고 밝게 웃었다.

**오랫동안 사랑 지킨 노부부…많은 대화와 작은 배려 비결**

‘남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오랫동안 함께한 조흔 부부 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또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부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선정했다.

같은 공간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부부들을 찾아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며 함께 일하는 커플들로 모아졌고, 이들은 하루 대부분을 함께 지내고 일하며 틈틈이 장래 계획을 계획하고 병원 검진을 다니는 등 노년의 일상을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인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빛 축제 ‘디wali’부터 브라질의 토속 종교 업브란다의 전통 의식, 전라남도 바닷가의 전복 양식장 등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까지 각 나라의 다채로운 삶의 모습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진 감독은 “문화적 다양성이 많아 보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커플들의 사랑의 방식은 너무나 닮아 있다”며 “많은 대화와 작은 배려가 오랫동안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만큼 공통의 비결인 것 같다. 6개국 커플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은 사는 곳과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의 본질은 결국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섯 나라 노부부 중 브라질 편은 여성 동성 커플을 담아내 이목을 끈다.

진 감독은 “브라질 커플을 결정할 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남아’ 시리즈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응원하고, 모두의 삶이 훨씬 성공적이고 아름답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원작의 스토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느꼈고 시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커플도 장애가 있는데 국가폭력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 시리즈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커플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구 콘텐츠의 절대적인 다수가 사랑을 소재로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인류가 고민하는 최전선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돌이 하는 것이므로 나로부터 시작하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6개국 커플들의 작은 행동과 배려들을 시청자들이 관찰하면서 완벽한 배우자를 만하려는 노력보다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것도 얻어가기를 바라요.”

뉴시스



## ‘놀면’ SG워너비, 역주행…“여러분 추억이 1위”

‘타임리스’·‘라라라’·‘내 사람’·‘살다가’ 등 차트 재진입

보컬그룹 ‘SG워너비’가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출연 이후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의 24시간 차트 ‘타임리스’ ‘라라라’ ‘내 사람’ ‘살다가’ 등 SG워너비의 대표곡이 차트에 재진입했다. 특히 ‘백스’와 지니뮤직에서 ‘타임리스’는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SG워너비는 지난 17일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히트곡을 열창, 시청자의 추억을 소환했다.

멤버 김진호는 방송 직후 소셜 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의 추억이 1위예요. SG워

너비의 1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추억이 강하고 귀했다는 의미”라고 기뻐했다.

또 다른 멤버 김용준도 소셜미디어에 “요즘 코로나로 다들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저희의 노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가슴에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면 정말 너무 없이 행복한 밤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석훈도 “앞이 아닌 뒤에서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을 테니 가끔씩 찾아와 달라”고 썼다.

SG워너비는 2004년 1집 ‘워너 비(Wanna Be)’로 데뷔했다. 애절한 발라드 풍의 히트곡을 연달아 쏟아내며, 2000년대 후반 큰 인기를 누렸다.

## 김희재 “미스터트롯’, 단 한 번의 불화 없어”

가수 김희재가 ‘미스터 트롯’ 멤버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희재는 19일 방송된 KBS Cool FM ‘조우종의 FM대행진’에 출연, ‘미스터트롯’ 멤버들에 대해 “절대 뺄 수 없는 형제”라며 “미스터트롯’ 경연부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정말 가까워 지냈다”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어 “단 한 번의 불화가 없고,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그랬다. 사랑이 가득한 형, 동생을 만

났구나 싶다. 시청자들이 봐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DJ 조우종이 “직접 프로듀싱하고 싶은 멤버로 정동원을 꼽았다”고 이야기하자, “동원 군이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에 소년소년해져서 멋진 모습, 또 춤도 잘춰서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 김창열 “애절한 시기 이런 입장문 송구…억측 자제해달라”

故 이현배 사망…이하늘 “내가 죽인 거야” 분노

그들 ‘DJ DOC’ 멤버 김창열이 고(故) 이현배의 사망 원인과 관련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김창열은 19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선, 고인이 되신 이현배 님의 삼가 명복을 빈다. 추모와 애도를 표해야 하는 시간에 이런 입장문을 내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김창열은 “DJ DOC는 1994년 데뷔 이후 많은 시간을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며 성장해 온 그룹”이라며 “이 과정 속에서 함께 비지니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인을 떠나 보내는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오래 전 일

을 꺼내거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비보에 혼란스럽고 애절한 시기인 만큼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열의 팀 동료이자 이현배의 친형인 이하늘은 지난 17일 김창열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이현배 추모 글에 “내가 죽인 거야”라는 욕설 댓글을 남겨 파장이 일었다.

이후 이하늘은 이날 새벽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창열, 이현배와 제주에서 펜션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김창열이 수익성을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줄 수 없다

고 해 크게 싸웠다고 토로했다.

이후 펜션 사업을 주도한 이현배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배달 일을 했고, 결국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창열과 그간 갈등이 깊어져 있었다고도 폭로했다. 그가 DJ DOC 새 앨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최근 매니지먼트사 대표로 취임한 사실도 기사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하늘과 김창열은 1994년 DJ DOC ‘슈퍼맨의 비애’로 데뷔했다. ‘스트릿 라이프’ ‘나 이런 사람이야’ ‘여름이야’ 등의 히트곡을 냈다. 이들의 음악을 모티브 삼은 팝 뮤지컬 ‘스트릿 라이프’가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김창열은 최근 싸이더스HQ 엔터부문 대표로 선임됐다.

## 블랙핑크, ‘러브식 걸즈’도 넘겼다

4억뷰 뮤비 11번째, K팝 걸그룹 최다 기록

그룹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가 4억 뷰를 돌파했다.

1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따르면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는 19일 오전 11시55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회를 넘어섰다.

작년 10월2일 공개된 지 약 199일 만이다. 블랙핑크의 27개 역대뷰 영상 중 4억뷰 달성은 11번째다. K팝 걸그룹 최다 기록이다.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는 강력한 퍼포먼스 중심의 구성과 연출로 인기를 끈 기존 작품들과 달리 블랙핑크 멤버들의 성숙한 내면 연기가 돋보여 호평받았다. 공개되자마자 폭발

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75시간 만에 1억뷰에 도달했다. 당시 유튜브에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올랐다.

‘러브식 걸즈’ 음원 역시 글로벌 주요 차트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2주 연속 정상을 밟았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한데 이어 미국 ‘빌보드 핫100’에 59위로 진입했다.

이 곡이 수록된 ‘디 앨범(THE ALBUM)’은 미국을 비롯해 총 5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다. 음반은 총 12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됐다.



## 샤이니 태민, 온라인 솔로 콘서트 다음달 2일 개최

전 세계 유료 생중계 예정

그룹 ‘샤이니’의 태민이 다음달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Beyond LIVE)’를 통해 솔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1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태민의 솔

로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 - 태민 : 네버 고나 댄스 어게인(Beyond LIVE - TAEMIN : N.G.D.A)’은 오는 5월2일 오후 3시에 네이버브이 라이브(V LIVE)의 비온드 라이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유료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12월 일본에

서 열린 ‘티일공공일일공일(T1001101)’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펼치는 태민의 솔로 콘서트다.

역대 히트곡들은 물론 지난해 발표한 정규 3집 ‘네버 고나 댄스 어게인(Never Gonna Dance Again)’ 수록곡들까지 태민의 감각적인 무대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